



미국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¹⁾

권오경 연구원

AM Best에 의하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사 수가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로 자동차보험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 경쟁업체의 인수합병, 주별 규제차이 등이 지적됨. 또한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매채널 변화도 회사 순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보조시스템, 공유형 시스템 등의 등장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됨

■ AM Best에 의하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사 수가 감소하고 있음

- 1975년 시장점유율 0.5% 이상 자동차보험회사는 38개사였으나 2018년 22개사로 감소하였고, 1975년에 있던 회사 중 11개사만이 생존함
- 1970년대 중반 상위 5개사는 State Farm, Allstate, Geico, Farmers, Aetna의 순이었음

■ 다수의 회사가 자동차보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부 회사는 손해보험 사업을 정리하였는데, 이들의 시장 철수 원인은 자동차보험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 경쟁업체의 인수합병, 주별 규제차이 등으로 지적됨

-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건강보험 사업에 집중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철수하였음
 - Cigna, Aetna, Prudention, PruCare는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로 주식시장에서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자동차보험 사업을 매각함
 - 1990년 Cigna는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며 건강보험 및 단체보험 사업에 집중하게 됨
 - Aetna는 1907년부터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여 1970년대 중반 자동차보험 업계 상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손해보험에서 생명 및 건강보험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함²⁾

1) 본고는 다음의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함; Lori Chordas(2019. 10), "Driving Distribution", *Best's Review*, AM Best
 2) 1996년 손해보험 사업을 Travelers에 매각하여, Travelers는 업계 19위에서 10위로 상승함

- 2000년대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시장점유율 순위가 변동됨
 - St. Paul은 Travelers에 합병되었고, Ace Ltd.는 Fireman's Fund를, Liberty Mutual은 Ohio Casualty를 인수하였음
 - 2011년 Allstate는 Esurance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하였는데,³⁾ 이후 Allstate의 직판 자동차 채널 시장점유율이 2배 성장하게 됨
- 또한, 주별 규제차이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사업영위에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음
 - 1990년대 뉴저지 주에서는 높은 사고율, 고소인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 보험사기 만연, 무과실 보험⁴⁾ 등의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인해 다수의 회사가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철수함⁵⁾
 - 같은 시기에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보험회사에 비우호적인 규제환경으로 Fireman's Fund, Holyoke Mutual이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철수함

■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매채널 변화도 회사 순위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전속채널을 이용하는 State Farm, Allstate는 직판보험사인 Geico, Progressive와 같은 후발주자에게 점유율을 내어 주고 있음
 - 직판보험사의 개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4%에서 2015년 47%로 확대됨
- 최근 설계사 채널 중심의 보험회사는 직판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도전을 받고 있음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보조시스템, 공유형 시스템 등의 등장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됨

- Morgan Stanley는 자율주행 및 공유시스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40년까지 자동차보험 산업이 80% 이상 축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영향이 10~20년 내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있음 [kiri](#)

3) 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 인수합병 사건으로 평가되며, 최대 거래는 1995년 업계 13위였던 Continental이 CNA로 11억 달러에 매각된 사례임

4) 무과실 보험(No-Fault)은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는 보험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 및 신속한 피해보상이 장점이나, 과실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됨

5) 1998년 뉴저지 주는 자보요율과 보험회사 손해율을 감소시키는 『자동차보험비용경감법(Automobile Insurance Cost Reduction Act)』을 발효했으나 자보시장 철수를 방어하지 못하였고, 신규 시장진입도 이루어지지 않음